

데스크 시각



윤영기 사회부장

홈즈 대법관은 미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다. 1929년 ‘미합중국 대(對) 슈피머 판결’에서 이런 소수 의견을 남겼다. “만약 다른 원리보다도 더욱 긴요하게 예적을 요하는 헌법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생각의 원리다. 우리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로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의 자유 말이다.” 간결한 주문에는 타인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내 표현의 자유도 보장된다는 신념이 깃들어 있었다.

굳이 먼 나라 얘기를 언급한 것은 광주를 되돌아보자는 의미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옛 전남 도청 보존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문화부 간부와 몇몇 문화전당 관계자를 제외하면 참석자 대부분은 ‘옛 도청 복원을 위한

열린 광주를 위해

범시민단 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과 5·18단체 관계자들이었다. 이들은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 도청을 합부로 훼손했다”며 문화부와 문화전당 측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다른 생각이라 배척해서야

문화전당에 포함된 옛 전남 도청(민주평화교류원·민평)에 광주항쟁 관련 전시 콘텐츠를 구축하면서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해 총탄 자국 등 5월 유적을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무임이사는 이들과 생각이 결이 달랐다. 그는 공청회에서 “대책위의 주장대로 옛 전남 도청 전체를 복원하면 민평의 국제교류협력센터 기능은 사라진다. 민평을 5·18기념관으로 하자는 것이지, 그 원형 복원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복원에는 고려할 사안도 있기에 그 대안을 우회적으로 물은 것이다.

대책위의 답변을 기대했던 그는 객석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아우와 욕설 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가 발언을 시작하면서 “옛 전남 도청과 관련하여 생각의 다름을 이야기한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운을 뗐을 때도 이런 반응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단언컨대, 5월과 문화전당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미뤄 이 상임이사는 결코 그렇게 매도당할 사람은 아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광주예총·광주민예총 등이 지난달 29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 토론회’도 곡절 끝에 당일 현장에서 취소됐다. 문화전당 건립을 도맡았던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것을 막아선 일부 5월 관련자들 때문이었다.

민평 논란과 무관한 예술도 ‘5월의 벽’을 마주했다. 최근 옛 전남도청 건물에 평화를 주제로 한 대형 조각보를 걸려던 한 작가는 일부 5월 관련자의 반대로 포기하고 다른 곳을 모색하고 있다. ‘민평을 훼손한 문화전당의 지원을 받은 작가’라는 게 이유였다.

민평, 보다 활발한 논의들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련의 상황을 곱씹는 이유는 광주가 ‘탄천 사회’로 변하는 것 같아서다. 옛 전남 도청 복원이 라는 ‘대의명분’에 공론을 제기하는 것까지 금기하는 분위기를 우려하는 노파심이다. 강요된 ‘한목소리’ 탓에 옛 전남 도청 복원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들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안타깝지만 광주의 현재 민도가 이 정도인 것일까.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이 지키고 보존해야 할 5월의 정신과 가치, 유적이 소중하다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광주 사람들이다. 다만, 문화전당의 성공적 운영과 광주의 미래가 맞물려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게 이들의 ‘다름’이다. 문화전당은 민평을 포함한 5개 원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구동 원리가 설계돼 있다. 결국 민평 원형 복원 문제는 문화전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옛 전남 도청의 전면 원형 복원에는 일정 부분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얘기도.

광주시가 ‘옛 전남 도청 보존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책위가 발의한 옛 전남 도청의 ‘5월 모습으로 원형 복원’에 동의한다”고 공식 선언했으면서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말을 끼워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옛 도청 복원 문제는 간단치 않다. 민평 복원과 문화전당은 시민들의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옛 전남 도청과 문화전당 민평에 대해서는 열린 토론의 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토론과 논쟁 없는 공간은 닫힌 사회다. 광주는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기 고



구충근 화순군수

화순은 의(義)의 고장이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화순 사람들은 묵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앞장섰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최경회 선생과 그의 형제·조카들, 진주성에서 최경회 선생과 함께 싸운 문충환·구희·오방환·김인갑 그리고 달랑포에서 왜적과 싸운 조현이 그렇다.

구한말 때 일제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였던 쌍산의소의 행사 양회일 의병장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들, 1919년 삼일운동 때 독립만세를 외쳤던 조국현, 기미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호남인 지강 양한목 선생, 1929년 광주학생독립

의향(義鄕) 화순 그리고 최경회 선생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송충 선생 등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화순 사람들은 위기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아 이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서슴없이 총칼을 들고 왜적과 싸워 목숨을 바쳤다.

이러한 선현들의 의로운 충의 정신은 현재 남아 있는 많은 문화유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내 유일의 구한말 의병 유적지인 쌍산 향일의병 유적(국가지정 사적 제485호), 최경회 선생 관련 유적인 능주 삼총각(전남도기념물 제77호)과 고사정(전남도기념물 제249호), 최경회 사당, 목숨을 건 항쟁의 현장이었던 오성산성, 문달환 초상, 쌍봉리 충신각, 대리 칠층각, 금오산성지 등 관련 문화재만도 11 곳에 이른다.

특히 충의공 최경회 선생의 의병 활동은 의(義)의 고장 화순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고 있다. 최경회 선생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어머니 상충임에도 의병을 모아 거의(舉義)했다. 남일·장수·무주에서 왜적을 무찌르고 경상도로 진군하여 진주성 전투에서 9일 밤낮을 싸웠으

나 성이 함락됐다. 이때 함께 싸우던 조카 흥재에게 언월도를 건네준 뒤 고향으로 돌려보내더니 김천일·고종후 등과 함께 서사시(誓死詩)를 남기고 순절했다.

진주성을 나온 흥재에게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최경회의 형 경운과 경장도 동생의 의로운 충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일흔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계의(繼義)의 깃발을 앞세워 왜적과 싸웠다. 그 대표적 인 전적지가 동면 서성리 일원에 있는 오성산성(전남도기념물 제193호)이다.

이렇듯 최경회 선생을 비롯한 화순의 많은 선현들의 충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전해져서 민주 국가와 화순군 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화순 군청 앞의 푸른 은행나무 두 그루가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화순의 많은 남자들이 의병으로 나서는 바람에 일손이 부족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세금을 거둘들이 못하고 화순현은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1594년 능성현(지금의 능주)에

합하고 화순현을 폐현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나고 폐현된 지 17년 만인 광해군 3년(1611년) 화순현이 복현되면서 당시 화순 현감이었던 이인부가 복원을 기념해 화순현 객관 앞에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현재 군청 앞에 있는 은행나무인 것이다.

화순은 예부터 많은 충의열사를 배출해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렸다.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 말했다. 호남이 없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라 말할 정도로 호남 사람들의 의(義)의 정신을 높이 찬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잦은 침략에도 불구하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화순 사람들처럼 초야에서 의롭게 일어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의로운 정신을 더욱 선양해야 할 것이다. 책임지는 정치, 소통하는 행정을 지향하면서 최경회 선생의 애국심, 충의 정신을 본받아 의롭고 화합하는 화순 경영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은편칼럼



고성혁 시인

비가 내린다. 산골의 토방에 앉아 안개처럼 내리는 비를 보며 멀리 떨어진 세상을 생각하다가 너를 떠올린다. 삶을 살면서, 내가 너와 같은 ‘철면피’의 노고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다니. 너를 영영 떠나 보내는 한탄의 대로변에서는 눈시울이 붉어져 돌아서야 했다. 너를 보다가 문득 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찍었다. 코끝이 찡해더니 눈 안이 그렇그렁해졌다. 그동안의 많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세월, 내게 실로 소중했던 시간을 함께 해 준 고마움으로 내 안에 안타까움이 절절해지다 나 중에는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아내를 힐끔 쳐다봤더니 그 사람도 눈가가 붉어져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 인사

1995년 8월 28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다. 무려 21년 11개월 넘게 동고동락했다. 그날이 눈에 선하다. 나는 너의 첫 모습을 보고 기쁨에 넘쳤다. 너와 함께할 수 있는 스스로가 대견했으며 한편으로 너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다. 아이들은 그때 야구와 농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생이었고, 어머니는 하루 한 통의 막걸리를 마시며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다. 그런데 2017년 7월 지금, 우리 결연 아무도 없다.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가셨고 아이들은 독립해 곁을 떠났다.

우리 부부는 또 어떤가. 환갑이러니, 우리에게는 절대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불가항력의 노년이 도래했다.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굳은 약속과 맹세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강물의 흐름을 통해 시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실체적 존재의 미약함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모든 상념의 시작은 너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까지도 부사진 허약한 너는 가고, 묵묵히 헌신해 준 공선 너만 남았

다. 가슴이 연민으로 물결친다.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눈을 마주쳐 준 너. 눈가에 생채기 가득하고 귀는 찢어졌으며 머리는 깨지고 뒤는 잘린 채 간신히 그 형용만 남아 비웃음을 받았지만, 너는 오로지 해야 할 일만 생각하며 언제나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거리를 나섰다.

그럼에도 너의 입성이 너무 오래되고 험상궂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노숙자로 신고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분노하고 말았지. 실상은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타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가벼운 세태라니.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또 어쩌랴. 너를 빗대 옛것을 제대로 알고 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말한다며 내가 과거형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에 대한 복기를 통해 소심하게나마 인간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늙은 어머니께 자부심을 갖게 한 네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이들이 커 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 아이들이 마음껏 비비고 땀 수 있게 허락하고, 더러 상처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네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어느 몹시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두 번씩이나 내 목숨을 살려 준 네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개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나머지 자투리 생의 늙은 몸으로 내 아내를 잘 지켜 준 네게 다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너도 알고 있었는지? 아내가 너와 더불어 40년 평생직장을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을, 그 사람의 아쉬움을 생각하노라니 너의 퇴역과 그동안의 분투가 더욱 절절해지는구나. 이 도시에서 가장 고령이었을 너의 노고를 어찌 잊으랴. 한 달에 한 번씩 링거를 맞으면서도 혼신을 다해 마지막 투혼을 불사른 내 영원한 친구! 며칠 전, 고장 났던 속도계가 갑자기 정상 작동되는 것을 보고 너의 ‘마지막 인사’를 직감하며 삶의 덧없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 1995년에 출생해 2017년에 사망한 내 늙은 친구,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하리. 잘 가시라, 쏘나타투 2.0 차대번호 KMHCF31FPSU476430, 9263이여. 부디 안녕히. (2017년 7월 10일에 떠난 친구를 기리며)

社說

장시간 운행 시내버스 기사 위험 안고 달린다

광주 시내버스 기사들의 체력이 일반인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한다. 광주시내버스 기사 1886명의 건강과 체력을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일반인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위기상황 시 순간 대처 능력을 가능할 수 있는 순발력과 유연성도 평균이하로 턱없이 모자랐으며, 심폐지구력·근력·근지구력이 약한 점도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2인 1버스’ 체계로 하루 8시간

운행하는 반면 비정규직(정규직이 60세에 퇴직 후 전환)은 다음날 하루를 쉬는 대신 하루에 무려 16~20시간을 혼자 운행하고 있다. 결국 고령자가 하루 종일 근무하는 탓에 피로도로 인한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 기사들의 고령화 추세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광주 시내버스 운전자 중 68.6%가 51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택시 기사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개인 택시는 전체 운전자(4793명) 중 51.7%가 61세 이상이었고 법인택시는 3698명 가운데 22%가 61세 이상이였다.

미국에서는 기사의 ID카드와 버스 운행 시스템을 연결해 한 명의 기사가 하루 8시간 이상을 운행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기사들의 운행 시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2시간 운행마다 30분 휴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로 안의 사유지 국가가 매입 나서야

공공도로에 울타리를 치고 일반인의 통행을 막는 경우를 종종 본다. 공공도로나지만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내 땅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 자리한 동구청과 KT호남권고객센터 건물간 도로에서 지난 12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해당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민 2명이 “개인 사유지입니다”라고 쓴 촛봉 현수막(4m)으로 도로를 막아선 것이다.

차량 통행이 막혀 정체가 빚어지자 결국 인근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설득하자 이들은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으나 이틀날 오후 또다시 같은 행위로 동구 직원들과 승강기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 지역에서 공공도로 중 사유지가 포함돼 소유자와 분쟁이 발

생하는 경우는 5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 등 개발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내 땅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주민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공공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민 2명이 “개인 사유지입니다”라고 쓴 촛봉 현수막(4m)으로 도로를 막아선 것이다.

차량 통행이 막혀 정체가 빚어지자 결국 인근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설득하자 이들은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으나 이틀날 오후 또다시 같은 행위로 동구 직원들과 승강기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 지역에서 공공도로 중 사유지가 포함돼 소유자와 분쟁이 발

無 等 鼓

조광조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와 ‘성급한 개혁가’로 나뉜다. 다소 상충되는 두 가지 수식어에는 뜻을 펼치지 못하고 38세에 임금에게 사약을 받아야 했던 개혁가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는 후세들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조광조는 종종의 두터운 신임 아래 왕도정치를 이끌어 간 조선의 대표적인 개혁가였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반대파(훈구파)에게 밀려 숙청을 당했다. 조광조는 종종반정의 공신 중 부

담하게 상을 받은 사람들의 공을 없애자는 ‘위훈 삭제 운동’을 들고 나왔는데 종종은 그것이 결국은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다.

훈구파들은 “조(趙)씨가 왕이 된다”는 이른바 ‘주초위왕’(走肖爲王)이란 술수로 조광조의 탄핵을 요구했는데 종종은 지금의 화순인 능성(綾城)에 유배를 보내고 유배 한 달 만에 사약을 내렸다. 탄핵을 주도한 남근조자 조광조에 대한 사사만큼은 반대했지만 종종은 “마음이 곧지 않다.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며 극구 죽음을 요구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사약을 받던 날(중종 14년 12월 16일) 조광조는 처음에는 사사가 임금의 뜻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다가 임금부 도사가 가져온 쪽지를 보고서야 혼연히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하고/ 나라를 내 집처럼 근심하였네/ 해가 아랫세상을 굽어보니/ 충정을 밝게 비추리”라는 시를 남기고 약사발을 들었다. 죽기 직전 집주인에게 “내가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반대파(훈구파)에게 밀려 숙청을 당했다. 조광조는 종종반정의 공신 중 부

조광조와 화순

담하게 상을 받은 사람들의 공을 없애자는 ‘위훈 삭제 운동’을 들고 나왔는데 종종은 그것이 결국은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다.

훈구파들은 “조(趙)씨가 왕이 된다”는 이른바 ‘주초위왕’(走肖爲王)이란 술수로 조광조의 탄핵을 요구했는데 종종은 지금의 화순인 능성(綾城)에 유배를 보내고 유배 한 달 만에 사약을 내렸다. 탄핵을 주도한 남근조자 조광조에 대한 사사만큼은 반대했지만 종종은 “마음이 곧지 않다.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며 극구 죽음을 요구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